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인민보안상 내무군대장 최부일동지, 인민보안성 조직부 국장 내무군중장 림종환동지를 비롯한 해당단위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대동강 돼지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2011년에 일떠선 규모가 큰 축산물생산기지이다.



뜻을 심장마디에 새겨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공장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으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1년 10월 공장을 다녀가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훌륭히 꾸리였으며 돼지고기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도록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았을뿐만아니라 현대적인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도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도록 과학적인 축산체계를 확립하며 파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

계를 짜고들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대로 정보당 50%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 생산성이 높고 맛이 좋은 과일종자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량품종의 과일모

환생산체계를 철저히 세워 과수원의 지력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문제, 과수업의 세계적인 발전방향에 맞게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할데 대한 문제, 전국의 과수농장들과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문제 등 농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일나무술과 어울리게 들어앉은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고

도 보시며 볼수록 멋있고 호모하다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무용도원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최한한 풍경은 사회주의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해마다 면모가 달라지고 생산량도 높아지는 이 농장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세상이 보란듯이 강성변영의 명마루를 향하여 출발을쳐가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한그루의 과일나무를 가꾸어도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인민보안성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 근로자들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안으시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불멸의 명도자욱을 새기시며 자기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대례같은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리지 못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시정지보도반

